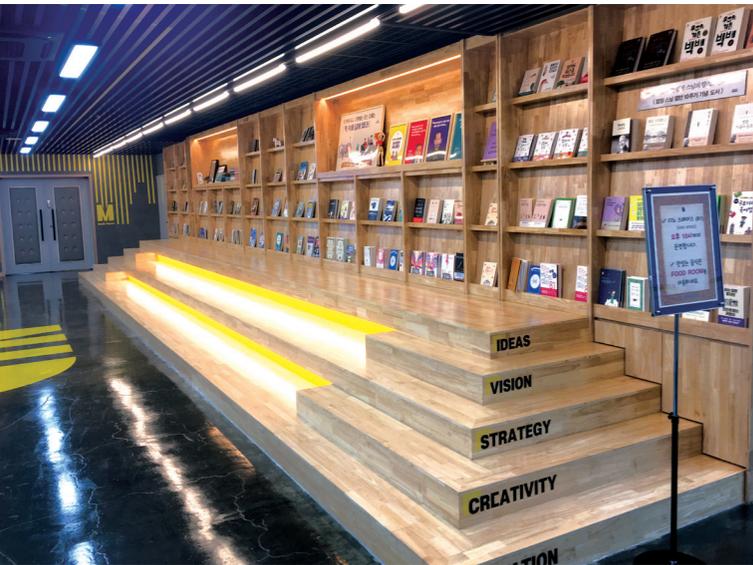


대화도서관,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다

고양시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직접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시제품 제작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대화도서관이다. 대화도서관에서는 공유형 창업·창의 공작소 안에 창업과 관련된 교육, 토크콘서트, 희망자 실전교육 등이 진행될 색다른 공간을 조성했다.

글 백귀중 사진 대화도서관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공간 '디노 스페이스'

고양시 도서관센터는 작년 일산서구 대화도서관에 공유공작소(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한 데 이어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1월 디노 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디노 스페이스는 Daehwa(대화도서관)와 Innovation(혁신)의 합성어로 큰 변화(혁신)를 일으킬 공간을 의미하며 창업 및 메이커문화 확산을 통한 창업동아리 및 지역 주민이 생각을 나누고 관계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다.

디노 스페이스는 열린책공간(Book)-B, 큰모듬방(Discussion Room)-R, 시청각실(Multi-Room)-M, 도시락방(Food)-F, 작은모듬방(Cafeteria)-C, 창업연구공간(Lab)-L, 야외쉼터로 꾸며졌다.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이용자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다양한 특강 및 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학 협업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제품 제작 컨설팅,

비즈쿨, 메이커 덕후 양성프로그램, 메이커톤-아이디어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능 있는 개인, 단체, 동아리 등과 다양한 기관들이 실질적인 협업을 구축해 창업·창의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웹툰작가, 일반 시민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마련된다. 창업지원카페 및 메이커 덕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며 창업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취·창업 희망자들을 적극 연결해주고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창업지원 허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창업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열린책공간에는 고양시출판인회의와 함께하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별도로 마련한다. 신간도서, 트렌드를 반영한 실물도서 등을 주기적으로 전시해 책 읽는 고양시 만들기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공유·창업·창의의 삼총사! '메이커 스페이스', '웹툰 스토리창작실', '창의캠프'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시제품, 견본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스타트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창의성 교육도 가능하다. 개인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해 내는 '인 제조업' 시대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많은 웹툰작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대학교에 만화에

니메이션학과가 소재하고 있어 웹툰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다. 대화도서관 내에 웹툰 작가와 지망생을 위한 '웹툰 스토리창작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능이 있는 웹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과 다양한 스토리와 문화콘텐츠 창작물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논리적 사고와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창의 캠프

프로 운영한다. 드론, 3D프린터, 로봇, 코딩, 가상현실, 레이저 커터 등 4차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직접 실습해서 체험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했다.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경력단절여성, 직장인 및 창업준비생 등 이용자별 편의를 배려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시청각실(Multi-Room)



야외쉼터



창업 연구공간(Lab)

